

##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기타큐슈 선언

### 한중일 문화 교류의 '새 시대'를 맞이하며

2021년 8월 30일,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개최되어 일본의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의 후허핑 문화여유부부장, 대한민국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3국이라고 한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작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인해 각국의 문화 분야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세계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는 가운데 문화 예술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중일 3국은 함께 연계해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문화 예술 활동의 발전과 계승을 지켜나갈 것이다.

3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문화 예술 및 문화 교류가 새로운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 3국은 앞으로도 문화 예술 활동의 재개, 발전, 계승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정보 교환을 계속하면서 3국의 다양한 문화 예술 관계자가 적절한 감염 대책을 취하면서 각국과의 문화 교류 사업을 재활성화하고 새로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간다.

또한 3국은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서명된 '인천 선언'에서도 언급되었던 '문화와 과학기술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의 새 시대에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예술 및 새로운 문화 전파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도 제시할 수 있도록 3국의 연계를 강화한다.

상기 인식을 토대로, 3국은 아래와 같이 한중일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는 것에 합의하였다.



## **1. 동아시아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시켜, 도시 간 교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

3국은 2021년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기타큐슈시(일본), 사오싱시 및 둔황시(중국), 순천시(한국)를 선정하고, 2022년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오이타현(일본), 원저우시 및 지난시(중국), 경주시(한국)를 선정하였다. 3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위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연계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

3국은 이전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와의 교류를 장려함과 동시에 ASEAN 문화도시 및 유럽 문화 수도와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가면서 한중일 문화예술의 매력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지속적으로 알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3국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문화도시, ASEAN 문화도시 및 유럽 문화수도를 초청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밋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3국은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공통 로고와 증서 작성에 대한 검토와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기준에 대하여 논의를 이어간다.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와 지식인의 참여,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의 지원을 환영한다.

## **2. 문화 예술 기관 간의 실무협력을 추진한다**

3국은 ‘한중일 예술제’, ‘한중일 문화 예술 교육 포럼’, ‘한중일 학생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등 한중일의 주요 문화 협력 사업이 상호이해와 문화예술의 발전,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에도 성실하게 실시해 나간다. 또한, 3국은 “한중일 예술제”등의 방안을 보다 발전시켜 한중일의 문화인과 예술가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구체적 계획을 검토하면서 한중일 문화예술의 매력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



3국은 각국의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립도서관, 국립극장 등 공공 문화예술기관과 민간문화예술기관 사이의 긴밀한 연계가 한중일의 문화교류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3국은 각 기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와 문화예술 활동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고 그 대책을 공유해 나간다. 나아가 3국은 한중일 문화예술 기관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이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활동의 질 향상과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및 영향력 향상을 함께 지향해 나간다.

### **3. 문화 산업과 관광업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한다**

3국은 문화산업의 기술 개발과 응용 및 인재 육성 등의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3국 문화 산업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3국은 ‘한중일 문화 콘텐츠 산업 포럼’ 등 한중일 공동 사업이 3국 문화 산업의 교류와 발전에 공헌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업의 개최를 통해 3국의 문화 산업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

3국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품 콘텐츠의 유통 촉진과 불법복제를 단속, 저작권 보호 의식의 고취를 위해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나간다.

3국은 문화·관광 융합을 통해 양자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국 문화 관광 자원의 가치 향상, 활발한 문화 관광 교류의 재개를 위해 협력한다.

#### 4.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연계를 강화한다

3국은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호 및 계승 발전을 위해 3국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한층 강화하고 지식인과 전문가 간 교류 지원의 중요성에 합의하였다. 무형 문화유산에 대하여 무형 문화유산 계승자 간의 상호교류도 장려해 나감과 동시에 그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5.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계기로 한 공동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에서 추진한 한중일 공동 문화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3국은 계속하여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및 베이징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공동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간다.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여유부부장

문부과학대신

황 희

후허핑

하기우다 고이치